

# 한국한자음 효(效)섭운의 모태별 층위에 대하여

-일본한자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지수\*, 이경철\*\*

## <국문 요약>

본고에서는 효(效)섭운에 한하여 그 한국한자음의 모태별 층위에 대해 일본 오음 및 한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각 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개구1등 호(豪)운은 후설저위모음 a와 운미합개음 u가 결합된 운인데, 일본 오음과 한음은 대부분 -au형으로 나타나지만, 순음자는 순음 자체의 원순성으로 인해 -ou형이나 -o형으로 나타난다. 한국한자음은 한자음을 1음절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우au/와 같은 2음절표기는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au가 한국한자음에서 -o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1음절화로 인한 음운 결합에 따른 결과로, 이를 통해 그 모태를 판별하기는 곤란하다.

2) 개구2등 효(肴)운의 한국한자음 -jo형은 오음의 -eu형과 유사한 자음형으로, 2등 주모음의 전설성을 반영한 형태이므로 진음(秦音) 이전의 층을 모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3) 소(宵)운 갑을류의 한국한자음 -jo형은 일본 오음-한음에서도 갑을류 모두 -eu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남북조음, 절운음, 진음의 어느 층을 반영할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효(效)섭 전체의 체계상 한음보다는 오음에 가까운 체계, 즉 진음 이전의 층을 모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한국한자음, 남북조음, 절운음, 진음, 효섭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3045205).

\*\* 최지수(주저자 Choe, Ji-soo. E-mail: jisoo0604@hanmail.net)

학위취득대학: 동국대학교 현직: 동국대학교(Seoul campus) 강사

\*\*\* 이경철(교신저자 Lee, Kyong-chul, E-mail: kanzi22@empal.com)

학위취득대학: 일본 히로시마대학 현직: 동국대학교(Seoul campus) 일어일문학과 정교수

논문접수일 : 2015년 6월 29일, 논문수정일 : 2015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5년 8월 20일

# A Study on the Origin of the *Xiao*(効) Group in Sino-Korean :Focused on a Comparative Study with Sino-Japanese

Choe, Ji-Soo, Lee, Kyong-Chul

## <Abstract>

In this research, I studied the origin of the *Xiao*(効) group in Sino-Korean mainly compared with Sino-Japanese *Go'on* and *Kan'on*.

The first rhyme *Hao*(豪) is combines a low vowel in the back of tongue, and u. Sino- Japanese *Kan'on* and *Go'on* show mostly in the form of -au. However, Labial show in the form of -ou or -o due to rounded features in Labial itself. Sino-Korean is accepts the Chinese language as one syllable, thereby unable to show two-syllable mark like -au form. Accordingly, what au is appears to be o in Sino-Korean is the outcome according to the phonological combination caused by one-syllable pattern. Through this, the origin of Sino-Korean in *Hao*(豪) rhyme cannot be discriminated.

In the 2nd rhyme *Yao*(肴), -jo form of Sino-Korean is similar to -eu form in *Go'on* that means reflects of main vowel's frontness in the 2nd rhymes. thereby seeming to reflect early middle Chinese.

In the 3rd rhyme *Xiao*(宵), A type contained medial i appears to be -jo form like B type contained medial i in Sino-Korean. Both *Go'on* and *Kan'on* also appear to be -eu form. in *Go'on* and Sino-Korean, it appears to be *Yo'on*(拗) form such as -eu form and -jo form, respectively, by reflecting frontness even in *Yao*(肴) rhyme of aperture 2nd. A type in *Xiao*(宵) rhyme also reflected frontness in the main vowel as in the 2nd-grade *Yao*(肴) rhyme, thereby being judged to be indicated as *Yo'on* form. Accordingly, it can be considered to have the matrix as a system close to *Go'on* rather than *Kan'on*, namely, to the layer before the late middle Chinese.

**[Keyword]** Sino-Korean, Early Middle Chinese, Late Middle Chinese, *Xiao*(効) Group

## I. 서론

지금까지 한국한자음의 모태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기되었으며, 아직까지도 그 모태에 대한 이견이 많다. 한국한자음의 모태에 관한 논의는 외국인 학자들에 의해서 먼저 주목을 받았다. 1926년 미쓰다 신조(満田新造)에 의해 남북혼합설이 제기된 이래, 아리사카 히데요(有坂秀世 1936)의 송대개봉음설, 칼그렌(Karlgren 1954)의 수당초북방음설,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1968)의 당대장안음설, 이토 치유키(伊藤智ゆき 2002)의 연구 등이 있다. 국내 학자로는 대표적으로 박병채(1971)의 절운음설, 신용태(1982)의 남북조기강남음설, 이경철(2001)의 남북조음절운음중층설이 있다. 또한 권인한(1997, 2006), 김무림(2006, 2007, 2012a, 2012b), 권혁준(2010), 이준환(2011a, 2011b)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한국한자음의 모태층을 8세기 이후 즉 당(唐)대 이후로 보고 있어,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1968)의 당대장안음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위국봉(2015)의 연구에서도 한국의 전승 한자음은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에 차용된 것으로 보고, 전승한자음을 바탕으로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의 고대 한국어를 재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한자음의 모태층위에 대해 여전히 분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해 명확하지 않거나 재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새로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있다. 또한 한국한자음의 모태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중국측 운서와 한국한자음의 음운체계 비교라는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자료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각각 결론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상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한국한자음과 일본한자음<sup>1)</sup>, 즉 5세기 남북조음의 자음체계를 반영하고 있는 일본 오음(吳音) 및 8세기 진(秦)음의 자음체계를 반영하고 있는 일본 한음(漢音)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한자음이 최근 학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1968)의 논과 같이 진음을 모태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체계를 모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태별 층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경철최지수(2013, 2014a, 2014b, 2014c, 2014d), 최지수(2014, 2015)에서의 연구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한자음의 효(效)섭운을 일본 오음 및 한음과 비교를 통해 그 모태별 층위에 대해 고찰해 가고자 한다.

더불어 한중일 삼국의 음절구조의 차이로 인해 중국어음을 수용할 때 나타나는 음운현상이 중국어의 복모음을 주로 2박(拍) 이하로 수용한 일본한자음과 1음절로 수용한 한국한자음의 대조를 통해 수용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고찰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원음의 시대적 차이를 반영한 것인지, 수용과정에서 음운체계상 자국어로서의 변화를 겪은 형태인지를 병행하여 밝혀내고자 한다.

한국한자음의 모태를 논하기 위해서는

1) 본 연구에서 일본한자음이란 용어는 주로 오음(吳音)과 한음(漢音)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단순하게 한 시기로 분류했던 중고음을 5세기의 남북조음, 7세기의 절운음, 8세기의 진음으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 이 세 시기의 음운변화가 한국한자음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한국한자음의 모태를 규명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모태의 판별에서 남북조음은 A로, 절운음은 B로, 진음은 C로 표기한다. 또한 두 층 이상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를 병기한다. 더불어 두 층 이상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느 한 쪽의 비중이 클 경우에는 비중이 큰 쪽을 대문자 A, B, C로, 비중이 작은 쪽을 소문자 a, b, c로 표기한다.

이하 본론에서 한국한자음의 모태층을 밝히는 것은 한국한자음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층을 파악하는 것으로 A, B, C층으로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층도 있지만, 중고음 내에 변화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며, 중고음 내의 변화가 한국한자음에는 한국어의 음운체계상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한국한자음과 일본한자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참조하였다. 한국한자음 자료는 15세기부터 16세기의 전승한자음을 수록한 각종 경서의 언해와 운서 등으로 권인한(2009)의 색인을 참조하였다. 일본 오음 및 한음 자료는 그 분운표나 색인이 공간된 자료에서 사적 변화에 의한 자음형과 다른 계통의 자음형을 제외한 공통적인 자음형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한국한자음: 『훈몽자회(訓蒙字會)』 『신증유합(新增類合)』 『천자문(千字文)』 『육조법보단경언해(六祖法寶壇經諺解)』 『진언권공삼단시식문언해(眞言勸供三檀施食文諺解)』 『번역소학(翻譯小學)』

『소학언해(小學諺解)』 『논어언해(論語諺解)』 『맹자언해(孟子諺解)』 『대학언해(大學諺解)』 『중용언해(中庸諺解)』 『효경언해(孝經諺解)』

오음: 『법화경음의(法華經音義)』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 『신역화엄경(新譯華嚴經)』 『광명진언토사권신기(光明眞言土沙勸信記)』 『승력음의(承曆音義)』 『류취명의초(類聚名義抄)』

한음: 『몽구(蒙求)』 『군서치요(群書治要)』 『대자은사삼장법사전(大慈恩寺三藏法師傳)』 『본조문수(本朝文粹)』 『불모대공작명왕경(佛母大孔雀明王經)』 『문경비부론(文鏡秘府論)』

## II. 본론

효(효)섭에는 호(豪)·효(肴)·소(宵)·소(蕭)운이 있으며, 제운이 『운경(韻鏡)』의 외전 제25개에 배열되어 있다. 이하 본론에서는 각 운별로 분운표(分韻表)를 통해 한국한자음과 일본한자음자료 24종에서 추출한 자음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국한자음의 모태별 층위에 대해 분석해 가기로 한다.

### 1. 개구1등 호(豪)운

<표1> 개구1등 호(豪)운의 한국한자음

자음형	해당례	모태
-o	고告誥高稿膏篙藁羔饅皐擗囊臬(見k)/고考爇拷尻고·호稿호稿(溪kʰ)/오傲熬熬熬熬稟放고鞫(疑ŋ)/오奧襖爇娛媼(影ʔ)/호好蒿薔(曉h)/호昊浩皓豪壕嗥號灑皤皤(匣h)/도刀劬烏到倒擣禱切禱禱(端t)/도叨鞫鞫怡瑫鞫도討套(透tʰ)/도道導悼稻擣蹈盜道桃洵萄擣陶濤逃藪(定d)/노瑠腦惱(泥n)/로老勞撈撈擣窰로牢(來l)/조早藻藻躁蚤棗遭槽窰(精ts)/조操糙 초草驛(清tsʰ)/조造皂曹槽槽(從dz)/소掃搔騷纒 초燥燥燥(心s)/보堡褱寶報(幫p)/포褒袍苞袍暴曝菹(並b)/모耗	AB

	毛旄耄冒帽帽耗耗髦(明m)	
-jo	豆條(透 <sup>h</sup> )/노膿(泥n)/료潦轆醪(來l)	C
	豆跳(定d)/	유추
-oi	되牢(來l)	AB
-u	수嫂(心s)	유추

<표2> 개구1등 호(豪)운에 걸친  
중고음의 변화 및 한일한자음 반영  
비교표

운	남북 조음	절운 음	진음	오음	한음	동음 2)
개구 1등 호운	-au	-au	-au	-au -ou · - o	-au -ou · - o	-o -jo -oi

<표1><표2>와 같이 개구1등 호(豪)운은 한국한자음에서 주로 -o형으로 나타나며, -jo형·-oi형이 혼재하고 있다. 일본 오음과 한음은 대부분 -au형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순음자를 중심으로 -ou형·-o형이 혼재<sup>3)</sup>하고 있다.

먼저 한국한자음에서 주로 -o형으로 반영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1979a, 441)·박병채(1971, 122-128), 이운동(1997, 200)<sup>4)</sup>은 모두 단모음화한 형태로 해석하였으나 모태층

- 2) 표에서 한국한자음은 자간을 배려하여 동음(東音)으로 표기한다.
- 3) 아리사카 히데요(有坂秀世 1957, 263-282)에서는 호(豪)운의 주모음 a는 후설모음이기 때문에 순음과 결합하는 경우는 [ou]와 같이 발음되어, 일본 한음에서는 순음자가 [ホウ]로 출현한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순음자와 다른 음계와의 변별성은 『절운(切韻)』에서 이미 그 경향이 나타나, 원(元)대의 『중원음운(中原音韻)』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였다.
- 4) 국어의 모음조직에 au와 같은 중모음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모음인 a와 원순모음인 u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o로 수용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1979a, 441)는 -o형에 대하여 -âu가 축약된 결과로 보고 모태층을 b층, 즉 진음에 두었다<sup>9)</sup>.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1979a, 441)에서의 b층은 진음에 해당하며, 본고에서의 B층은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1979a, 441)의 b층과는 다르게 절운음에 두었다. 고로 로쿠로(河野六郎 1979a, 434-446)에서는 이러한 단모음화를 일본 오음과의 유사점으로 보고 있다<sup>10)</sup>. 반면 박병채(1971, 122)는 -o형을 절운음의 반영으로 해석하였다. 근대 중국방언에서 -o나 -ou 등으로 나타나는 음형에서 -âu>-ou>-o로의 단모음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한국한자음에서는 음운결합으로 단모음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운동(1997, 200)은 상고음

9)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1979a, 498-503)는 효(效)섭에 걸친 한국한자음의 모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운	절운	해 림	한국한자음			
			a	b	c	d
개 구1	호(豪) 운	-âu	-â u	오		요
개 구2	효(肴) 운	-au	-au	오(요)		
개 구3	소(宵) 운	-jäu	-jä u	요		
개 구3 갑	소(宵) 운	-jäu	-jä u	요		
개 구4	소(蕭) 운	-eu				

10)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1979a, 434-446)에서는 일본 오음과 한국한자음에 공통되는 가장 현저한 특징은 중국 원음의 ai나 au라는 이중모음을 단모음화한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의 반영으로 보고 있는데, 그 근거는 칼그렌(Karlgren)·동동화(董同龢)는 ɔ로, 왕력(王力)은 ø로 상고음을 재구한 것에 있다.

조대하(2006, 206-210)에서는 호(豪)운에 반영된 일본 오음의 ou·o와 한국한자음의 o가 모태음인 ɔ인 상태를 반영한 것이며<sup>11)</sup>, 불전자료에 보이는 -o형은 단모음화에 의한 결과로 한국한자음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개구1등 호(豪)운은 <표2>와 같이 후설저위모음 a와 운미합개음 u가 결합된 운으로, 한국한자음은 한자음을 1음절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우au/와 같은 2음절의 자음형은 나타날 수 없으며 1음절화하여 대부분 -o형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경철(2012b, 275)에서 언급했듯이 호(豪)운과 동(冬)운의 경우 au는 한국어에서 /아우au/로 나타나야 하지만, 한국한자음에는 이와 같이 2음절화된 형태가 출현하지 않는다. 즉 1음절로 수용할 경우 /아우au/는 /오o/로 음운결합한 형태로 출현할 수밖에 없는 변용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au가 한국한자음에서 o로 나타나는 것은 1음절화로 인한 음운결합에 따른 결과이며, 전술한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1979a, 441), 박병채(1971, 122), 이윤동(1997, 200)의 논과 같이 상고음 혹은 중고음의 어느 특정 시기로 그 모태를 좁히기는 어려우며, 남북조음, 절운음, 진음의 어느 층을 반영할 가능성이 모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후술하듯이 개구2등 효운은 한국한자음에서 -jo형으로 출현한다. 즉 1등의 -au는 -o형으로, 2등의 -au는 -jo형으로 구별하여 수용하고

11) 상고시대에서 중고시대에 걸쳐 ɔ>ɔ>a의 변화를 거친 것으로 추정하였다.

있다는 것은 1등운과 2등운이 합류하는 진음 이전의 층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sup>12)</sup>.

이어서 한국한자음 -oi형인 [牢뢰]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1979a, 447)는 가(歌)운 개구1등 [箇개]와 동일한 기원을 가진 것으로 보고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중국어에서 운미 i를 동반했을 가능성<sup>13)</sup>이 있고, 두 번째는 한국어 내에서 운미 i가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반면 이준환(2011b, 211)은 국어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i가 첨가된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근대 국어 시기의 구개음화와 관련되어 구개성 반모음의 첨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sup>14)</sup>. 이윤동(1997, 202)은 상고음 loḡ에서 ḡ가 i로 변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토 치유키(伊藤智ゆき 2002, 171-178)에서는 [腦惱노]의 경우 [뇌]와 같은 자음형이 15-16세기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腦惱노]가 15-16세기 이후 현대 한국어에서 [腦惱뇌]로 변화하였으므로 ‘정정정향’으로 이

12) 한국한자음에서는 1등의 모(模)운 -au도 -o형으로 출현한다. 이는 1등의 -a와 -ɳ를 후설모음으로, 2등의 -a와 -ɳ는 전설모음으로 구별하여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13) 한국한자음 중 가(歌)운에 운미 -i가 첨가된 글자들이 있는데, 한국한자음 [箇개]의 자음형에 대해, 중국의 객가(客家)·산두(汕頭)·온주(溫州)방언 등에서 [箇개]가 ‘ko’ 또는 ‘ku’이외에 ‘kai’로 된 예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 다른 운미 i의 첨가형에, [鵝]는 복주(福州)에서 [鵝nguai], [駝]는 산두(汕頭)에서 [駝tai] 등의 자음형을 제시하여 중국어에서 운미 i를 동반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14) 이준환(2011b, 211)은 이들의 선행자음인 [ㄴ]과 [ㄷ]은 ‘구개음화의 피동화’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해하였다.

이러한 i모음첨가현상에 대해서 국어학계에서는 한국어 내에서 부음 i가 첨가되었을 가능성으로 보고, 그 시기는 17-18세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요 연구는 유창돈(1964), 허웅(1965), 이기문(1972), 이송녕(1988), 김경환(1998), 김무림(2006), 이준환(2011b, 260) 등의 연구가 있다. 유창돈(1964, 32)은 움라우트 현상과 관련하여 단모음화의 시기를 18세기 후반기로 보고 있다. 허웅(1952, 7-8)에서는 17세기 말로 추정하였는데, 허웅(1965, 433-437)에서는 19세기경으로 보고 있으며, 김경환(1998, 147-177)은 단모음화의 시기를 17세기중엽 이전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i모음첨가현상은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의 결과로 보고 있다. 반면 이송녕(1988, 514-531)은 움라우트 현상의 시초가 15세기 초기부터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한자음 -oi형에 대하여 국어내부적인 요인, 중국 원음에서의 음성적 반영과 상고음의 반영, ‘정정경향’ 등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 자체의 i모음첨가현상으로 인해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다음의 <표3>과 같이 일본한자음에서 i가 붙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며, 베트남한자음에서도 i모음이 후접되지 않는 자음형인 -o형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으로 보아 중국어 내에서 i모음이 후접되는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3>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i형은 15-16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자음형 [퇴牢]와 15-16세기 이후 자료에 나타나는 자음형 [뇌腦惱]가 있으며, [로/퇴牢]의

경우 『번역(翻譯)』 3(1518)과 『소학(小學)』 4(1518)에서는 [퇴牢]로, 『논어(論語)』 5(1590)에서는 [로牢]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15-16세기에도 i모음첨가현상이 진행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한자음 -oi형은 중국 원음의 반영보다는 한국어의 음운변화인 i모음첨가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다른 여러 운에 걸쳐 나타나며<sup>14)</sup>, 따라서 i모음첨가현상은 15세기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한국어의 일반적인 음운현상으로, -oi형은 -o형과 동일한 AB층을 모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한국한자음 -jo형인 [豆條/豆跳/豆腦/豆潦/豆膠]에 대해 살펴보자. -jo형은 2등 효(肴)운과 동일한 자음형이므로 1등운과 2등운이 합류한 진음의 음상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예외로 [豆跳]는 3등 감류에 속하는 [豆>조兆]의 유추음일 가능성이 있다.

<표3> 개구1등 호(豪)운에 걸친 한국한자음의 i모음 첨가형

성	한자	한국한자음 <sup>15)</sup>				한음 16)	오음 17)	월음 18)
		자회	유합	천자	기타			
泥	腦	노	노		※뇌 (15·16세기 이후)		ナ ウ1, 2,5	nao
	惱				※뇌 (15·16세기 이후)	タ ウ5	ナ ウ 1,2, 4,6	nao
來	牢	퇴	로		퇴3,4	ラ	ラ	lao

14) 합구1등 과(戈)운의 [쇄鎖], 2등 마(麻)운의 [패覇], 개구3등 우(尤)운 감류의 [취臭就], 합구2등 할(鎛)운의 [쇄刷]와 같이 여러 운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로5	우2, 3,4	우1, 2,3	
--	--	--	--	-----	------------	------------	--

## 2. 개구2등 효(肴)운

<표4> 개구2등 효(肴)운의 한국한자음

자음형	해당례	모태
-jo	교交狡校郊鉸教攪膠狡醉絞蛟(見k)/교·요巧碼駁(溪k <sup>h</sup> )/요樂(疑ŋ)/요拗료拗(影ʔ)/효孝哮嘯(曉h)/효效銷校肴(匣ɦ)/도嘲(知t)/요鏡도淖(泥n)/노鬧(娘ŋ)/초炒鈔抄(初t <sup>h</sup> )/쇼稍쇼·쇼筍鞘 초梢稍納艘(山f)/쇼橈(日ŋz)/표豹(幫p)/묘卯卯(明m)	AB
-o	호龠(曉h)/도棹(澄d)/조爪筴(莊t <sup>h</sup> )/소巢(牀d <sup>h</sup> )/포포苞飽(幫p)/포포抱炮脬抛胞(滂p <sup>h</sup> )/포포咆咆跑跑跑咆	C(순음 이외) ABC

- 15) 자간을 고려하여 한국한자음 자료는 『훈몽자회(訓蒙字會)』는 자회, 『신증유합(新增類合)』은 유합, 『천자문(千字文)』은 천자, 『육조법보단경언해(六祖法寶壇經諺解)』은 1, 『진언권공·삼단시식문언해(眞言勸供·三壇施食文諺解)』는 2, 『번역소학(翻譯小學)』은 3, 『소학언해(小學諺解)』는 4, 『논어언해(論語諺解)』는 5, 『맹자언해(孟子諺解)』는 6, 『대학언해(大學諺解)』는 7, 『중용언해(中庸諺解)』는 8, 『효경언해(孝經諺解)』는 9로 표기하였다.
- 16) 한음자료는 자간을 고려하여 『몽구(蒙求)』는 1, 『군서치요(群書治要)』는 2, 『대자은사삼장법사전(大慈恩寺三藏法師傳)』은 3, 『본조문수(本朝文粹)』는 4, 『불모대공작명왕경(佛母大孔雀明王經)』은 5, 『문경비부론(文鏡秘府論)』은 6으로 표기하였다.
- 17) 오음자료는 자간을 고려하여 『법화경음의(法華經音義)』는 1,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은 2, 『신역화엄경(新譯華嚴經)』은 3, 『광명진언토사권신기(光明眞言土沙勸信記)』는 4, 『승력음의(承曆音義)』는 5, 『류취명의초(類聚名義抄)』는 6으로 표기하였다.
- 18) 베트남 한자음은 미네야 도루(三根谷徹, 1993) 『中古漢語と越南漢字音』의 월남한자음대조표를 사용하였다.

	龜飽(竝b)/모茅蝥貌(明m)	(순음)
기타	좌抓(莊t <sup>h</sup> )	

<표5> 개구2등 효(肴)운에 걸친 중고음의 변화 및 한일한자음 반영

### 비교표

운	남북조음	절운음	진음	오음	한음	동음
개구2등 효운	-au	-au	-au	-eu -ou	-au -ou	-jo -o

<표4><표5>과 같이 개구2등 효(肴)운은 한국한자음에서 순음자는 모두 -o형으로, 그 이외에는 주로 -jo형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일부 -o형이 혼재하고 있다. 일본 한자음에서도 순음자는 오음·한음 모두 -o형으로 반영되었으며, 나머지는 한음은 -au형으로, 오음은 -eu형으로 반영되었다.

개구1등의 호(豪)운과 개구2등의 효(肴)운에서 한국한자음과 일본 오음은 1등의 후설모음 a와 2등의 전설모음 a라는 주모음의 차이를 반영하여 1등운과 2등운을 구별하고 있지만, 한음은 1·2등이 같은 -au형으로 반영되었다.

먼저 한국한자음의 주된 반영인 -jo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리사카 히데요(有坂秀世 1957, 323)·고로 로쿠로(河野六郎 1979a, 456-457)<sup>19)</sup>·이토 치유키(伊藤智

19)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1979a, 456-457)는 -jo형인 [교交]에 대하여, kau(交)가 2등운 이후음

ゆき 2002, 171-178)·김무림(2006, 114, 2007, 129)은 모태층을 진음 이후로 보고 있다. 아리사카 히데요(有坂秀世 1957, 323)는 -jo형에 대하여 근대 중국방언에 보이는 -iau의 단계로 보고 한국한자음의 모태를 10세기 개봉음에 두고 있다. 김무림(2006, 114, 2007, 129)도 -jo형의 한국한자음의 모태가 중고음 후기부터 송대에 걸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sup>20)</sup>. 이토 치유키(伊藤智ゆき 2002, 171-178)는 효(肴)운은 과도음<sup>21)</sup>이 생겨난 운이라고 보고, 한국한자음의 근원이 된 중국 원음에서는 전설주모음 a:ε와 운미 u의 결합에 의해 과도음<sup>가</sup> 생겨났다고 서술하였다.

이돈주(1995, 85-87)는 한국한자음의 -jo형을 중국어에서 14세기 중기 이후 효(效)·가(假)·해(蟹)·함(咸)·산(山)·강(江)·경(梗)섭의 아후음 2등자에 대하여 요음형이 발생한 것에서 그 설명을 찾고 있다. 이는 아리사카 히데요(有坂秀世 1957, 323)가 근대 중국어에 보이는 -iau형과 동일한 반영이라 보고 한국한자음의 모태를 10세기 개봉음이라고 한 주장과 통한다. 최미현(2006, 76-80)도 -jo형에 대하여, 김무림(2007, 113-139)이 아음과 후음에서 요

음이 발생한 것은 근대음의 영향이며, 1등과 2등 주모음의 전설성과 성모의 상관관계로 해석한 것을 예로 들어 동의하고 있다.

반면 박병채(1971, 122, 128)·조대하(2006, 210)·김태경(2013, 57-60)은 -jo형의 모태층을 진음 이전으로 보고 있다. 먼저 박병채(1971, 122, 128)는 전설모음인 a로 인해 구개적인 요음 i가 작용하였다고 보고 au>iau>jo의 음운추이를 상정하였다<sup>22)</sup>. 그리고 일본 오음에서도 한국한자음과 동일한 au>eu>jo로 반영됨을 예로 들어 -jo형은 절운음의 반영으로 해석하였다. 조대하(2006, 210)에서는 절운음보다 더 이른 시기의 반영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어에 e에 해당하는 단모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jo형으로 전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오음과 동일한 육조기(六朝期)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김태경(2013, 57-60)에서도 상고음의 반영으로 보고 있는데<sup>23)</sup>, 다른 섭운의 한국한자음에 2등운 개음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섭운마다 변화속도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sup>24)</sup>. 그렇지만 효(效)섭 2등자의

의 구개음화에 의해 kiau'로 바뀐 것을 [교]로 표시했다고 설명하며, -jo형을 모태층인 b층에 두었다.

20) 김무림(2006, 114; 2007, 129)에서는 이러한 요음의 발생요인에 대하여, '후설적인 1등 핵모에 대립하는 2등 핵모의 전설성과 여기에 성모계열(아음, 후음)의 상관성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아음과 후음에서 요음이 발생한 시기에 대하여서는 한국한자음에 체계적으로 반영된 점을 감안해서 중고음 후기나 초기 근대음으로 추정하였다.

21) 이토 치유키(伊藤智ゆき, 2002, 171-178)에서는 -lau 또는 -'lau와 같은 발음이었다고 해석하였다.

22) 이것은 근대 중국어의 영향이며, 이러한 현상은 중고한음에서 이미 일어난 현상으로 ia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23) 김태경(2013, 57-60)은 2등자가 상고 시기에 개음(i 또는 r)을 가졌다가 이 개음이 소실되는 과정에서 먼저 모음인 e로 변화였고 『절운』 이전에 완전하게 소실되었다고 가정하였다.

24) 김태경(2013, 57-60)은 한국한자음을 토대로 경(梗)섭과 효(效)섭자에서 e개음이 가장 늦게 탈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렇지만 경섭과 효섭 2등자의 개음(介音)도 『절운』 이전에 소실되었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당시 2등운에 개음이 남아 있었다면 『절운』에서도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다른 섭운에서는 e개음이 『절운』이 간행되기 훨씬 이전에

개음도 『절운』 이전에 소실되었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당시 2등운에 개음이 남아있었다면 『절운』에서도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개구2등 효(肴)운에서 오음은 <표6>과 같이 -eu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반영은 효(肴)운의 주모음이 전설적인 a이었기 때문에 ㄱ단보다는 ㄷ단에 가깝게 인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sup>25)</sup>. 즉 호(豪)운의 경우 후설저위모음인 a를 반영하여 -au형으로 나타나지만, 효(肴)운은 주모음이 전설저위모음인 a이므로 청각적으로 ㄷ단에 가깝게 인식되어 -au형 보다는 -eu형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자음을 1음절로 수용한 한국한자음에서도 1등의 후설적인 호(豪)운과 2등의 전설적인 효(肴)운을 구별하여, 2등의 효운은 요음형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구2등 효(肴)운의 한국한자음 -jo형은 주모음의 전설성을 반영한 표기로 한국어의 음운체계상 -au는 /아우au/로 나타나야 하지만, 이것을 1음절화하면 /오o/로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한자음에서 /오jo/로 나타나는 것은 이경철·이상(2012, 237-238)에서 언급했듯이, 오음의 -eu형처럼 주모음의 전설성을 반영한 자음형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한자음이 개구1등 호(豪)운은 -o형으로, 개구2등 효(肴)운은 -jo형으로 구별하여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진음 이전의 층을 모태로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

일찌감치 소실되어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반면, 경섭과 효섭에서는 e개음이 비교적 늦게 소실되면서 한국한자음에 흔적을 남겼다고 보았다.

25) 예를 들어 개구 2등 마(麻)운도 오음에서는 주로 -a형이 아닌 -e형으로 출현한다.

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어서 순음자는 한국한자음에서 모두 -o형으로 반영되었으며, 그 밖의 음계에서도 일부 -o형이 출현하는데, 이윤동(1997, 202)은 순음 성모의 원순성 때문에 구개화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o형으로 반영되었다고 추정하고, -o형은 중고음에 대응된다고 해석하였다. 이토 치유키(伊藤智ゆき, 2002, 171-178)는 순음에서 -o형의 반영은 조음위치의 영향으로<sup>26)</sup> 과도음이 발생하기 어려웠다고 해석하였다<sup>27)</sup>.

일본한자음에서도 순음자는 오음·한음 모두 -o형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한자음에서 순음자 -o형의 반영은 이윤동(1997, 202)과 이토 치유키(伊藤智ゆき 2002, 171-178)의 견해처럼 순음자 자체의 원순성으로 인해 요음성이 배제되어 -o형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순음자의 -o형은 남북조음, 절운음, 진음의 어느 층을 반영할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순음자 이외의 [호鶯/도棹/조爪箒/소巢]와 같은 -o형은 일반적인 -jo형과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 모태를 달리 할 가능성이 높다. 즉 -jo형이 -au에서 주모음의 전설성을 반영한 1박의 자음형이라고 판단한다면, -o형은 주모음의 전설성이 없어진 상태, 즉 진음에서 1등운과 2등운의 주모음이 통합된 상태의 -au<sup>28)</sup>

26) 주모음인 a가 a로 바뀌기가 용이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27) 또한 장뉴(莊紐)에서 -o형이 나오기 쉬운 것은 반설음의 영향으로 과도음 l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8) -au에서 절운음까지의 -a는 전설저위모음에 해당하지만, 진음의 -a는 1등운과 2등운의 주모음이 통합되어, 전설과 후설, 저위



(1997, 204)은 상고음과 대응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한국어의 모음조직에 jæu와 같은 중모음은 없기 때문에 전설저 모음인 æ와 원순모음인 u가 하나로 합쳐져 결과적으로 -jo형으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하였다<sup>31)</sup>.

한편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1979a, 463)는 소(宵)운 음류의 -jo형에 대하여 한국한자음의 모태층을 b층에, 즉 진음에 두었으며<sup>32)</sup>, 이토 치유키(伊藤智ゆき 2002, 171-178)는 j는 개음(介音)이 아니라 주모음 앞에 “과도음이 삽입된 형태 iæu”로 보았다. 김무림(2006, 113)은 소운의 개음은 후대로 갈수록 구개적으로 통일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근대음의 영향으로 해석하였다<sup>33)</sup>.

소(宵)운 음류는 한국한자음에서 갑류와 같은 -jo형으로 나타나며, 일본 한음·오음도 모두 -eu형으로 반영되었다. 오음과 한국한자음에서는 개구2등의 효(肴)운에서도 주모음의 전설성을 반영하여 각각 -eu형과 -jo형으로 나타나는데, 이경철·이상이(2012, 235-238)에서 언급했듯이 소(宵)운 음류도 2등의 효운에서와 같이

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31) 이윤동(1997, 204)에서 개구3등 소운을 jæu로 재구하고, 핵모음 æ에 운미음 u가 결합하여 ‘오’가 되고 여기에 개모음 j가 작용하여 ‘요’로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상고음을 칼그렌(Karlgren), 동동화(董同龢)는 iog, 왕력(王力)은 iō, 이방계(李方桂)는 jag로 재구한 것에 근거하여 이것은 상고음과도 대응된다고 하였다.

32)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1979a, 463)는 “yo가 jau를 옮긴 것인지 또는 -jau가 -jau로 변화한 형태를 옮긴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33) 이러한 형태는 국어 내부의 변화가 아닌 외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주모음의 전설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요음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소(宵)운에서는 한국한자음도 결과적으로 3등 갑음류가 동형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주모음이 전설적인 a이었기 때문에,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1979a)가 주장하는 진음에 걸친 음류의 갑류에의 통합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한자음에서 소(宵)운 갑음류가 -jo형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일본 한음·오음 모두 -eu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남북조음, 절운음, 진음의 어느 층을 반영할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단지 효섭운 전체의 체계로 판단한다면 한음보다는 오음에 가까운 체계, 즉 진음보다 앞선 시기의 층을 모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4. 4등 소(蕭)운

<표9> 개구4등 소(蕭)운의 한국한자음

자음형	해당례	모태
-jo	교咬敫叫皎 교·요微 효臬(見k)/교窳(溪k <sup>b</sup> )/요僂堯(疑ŋ)/료·요窳杳杏(影ʃ)/효曉(曉h)/도弔鳥鈞澗彫銅鵬彫雕(端t)/도眺耀(透t <sup>b</sup> )/도跳條調蝸蠶豆韶(定d)/뇨尿(泥n)/료了僚瞭瞭鑠蓼聊寮寮撩寮요 要료料(來l)/소嘯蕭蕭嘯(心s)	AB C
-ju	규噉(見k)/窳(溪k <sup>b</sup> )	
기타	덕帙(端t)/도挑(透t <sup>b</sup> )/수艘艘(心s)	

<표9><표10>과 같이 개구4등 소(蕭)운은 한국한자음에서 주로 -jo형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일본 오음과 한음은 모두 -eu형으로 나타난다.

<표10> 개구4등 소(蕭)운에 걸친  
중고음의 변화 및 한일한자음 반영  
비교표

운	남북 조음	절운 음	진음	오음	한음	동음
소 운 4등	-eu	-ieu	-ieu	-eu	-eu	-jo

4등 소(蕭)운이 소(宵)운 갑을류와 동일하게 한국한자음에서 -jo형으로 반영된 것에 대하여, 고노 로쿠로(河野六郎 1979a, 498-503)에서는 진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4등운이 남북조음까지 직음이었던 것이 절운음에서 오음화하였다는 기존의 학설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4등 소(蕭)운의 한국한자음 -jo형의 모태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일본한자음의 오음·한음 모두 -eu형으로 나타나며, 단모음 e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의 음운체계에서는 -eu이건 -ieu이건 1음절로서는 -jo형으로 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4등 소(蕭)운의 한국한자음 -jo형은 남북조음, 절운음, 진음의 어느 층을 반영할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단지 4등 소운도 효(效)섭운 전체의 체계로 판단한다면 한음보다는 오음에 가까운 체계, 즉 진음보다 앞선 시기의 층을 모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Ⅲ. 결론

본고에서는 효(效)섭의 5개운에 대한 한국한자음의 모태별 층위에 대하여 일본 오음 및 한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찰

하였다. 그 결과를 각 운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운모	남북 조음	절운 음	진음	오음	한음	동음	모태
호개 1	-au	-au	-au	-au -ou · - o	-au -ou · - o	-o -jo -oi	AB C AB
효개 2	-au	-au			-au	-jo -o(순음) -o(순음 이외)	AB ABc C
소개 3을	-iau	-ieu		-eu		-jo	ABc
소개 3갑	-iau		-ieu		-eu	-jo	ABc
소개 4	-eu					-jo	ABc

1)개구1등 호(豪)운은 후설저위모음 a와 운미합개음 u가 결합된 운인데, 일본 오음과 한음은 대부분 -au형으로 나타나지만, 순음자는 순음 자체의 원순성으로 인해 -ou형이나 -o형으로 나타난다. 한국한자음은 한어를 1음절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au형과 같은 2음절표기는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au가 한국한자음에서 o로 나타나는 것은 1음절화로 인한 음운결합에 따른 결과로, 이를 통해 모태를 판별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국한자음 -oi형은 한국어 자체의 i모음첨가현상으로 인해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본한자음에서 i가 붙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며, 베트남한자음에서도 i모음이 후접되지 않는 자음형인 -o로 출현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oi형도 -o형과 동일한 층을 모태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o형 -oi형 모두 남북조음, 절운음, 진음의 어

는 층을 반영할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2)개구2등 효(肴)운의 한국한자음 -jo 형은 오음의 -eu형과 유사한 자음형으로, 진음 이전의 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오음의 효운이 요음형인 -eu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효운의 주모음이 전설적인 a이었기 때문에 ㄱ단보다는 ㄷ단에 가깝게 인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한자음을 1음절로 수용한 한국한자음에서도 1등의 후설적인 호운과 2등의 전설적인 효운을 구별하여, 2등의 효운은 요음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순음자의 -o형은 일본 오음·한음 모두 -o형 또는 -ou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순음 자체의 원순성으로 인해 요음성이 배제되어 -o형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순음자의 -o형은 남북조음, 절운음, 진음의 어느 층을 반영할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순음자 이외의 -o형은 진음에서 1등운과 2등운의 주모음이 통합된 상태의 -au를 1음절로 반영했기 때문에 출현한 자음형으로, 진음을 모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3)개구3등 소(宵)운 갑을류는 한국한자음에서 갑을류 모두 같은 -jo형으로 나타나며, 오음·한음도 갑을류 모두 -eu형으로 나타난다. 한국한자음에서 갑을류가 동일하게 요음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소운 뿐인데, 그것은 개구2등의 효운에서도 주모음의 전설성을 반영하여 -jo형으로 나타나듯이, 소운 을류도 2등의 효운에서와 같이 주모음의 전설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요음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운 갑을류의 한국한자음 -jo형은 오음·한

음에서도 갑을류 모두 -eu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남북조음, 절운음, 진음의 어느 층을 반영할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효섭 전체의 체계상 한음보다는 오음에 가까운 체계, 즉 진음 이전의 층을 모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개구4등 소(蕭)운의 한국한자음 -jo 형은 오음·한음 모두 같은 -eu형으로 나타나며, 단모음 e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의 음운체계에서는 -eu이건 -ieu이건 1음절로서는 -jo형으로 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조음, 절운음, 진음의 어느 층을 반영할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단지 소운 역시 효섭 전체의 체계상으로 판단할 때는 진음 이전의 층을 모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권인한, 2006, “中世國語漢字音”, 『國語史와漢字音』, 서울: 박이정, pp. 57-94.
- \_\_\_\_\_, 2009, 『改訂版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 서울: 제이앤씨.
- 권혁준, 2010, “漢語의 遇攝과 流攝의 음운 변화와 韓國 漢字音에 반영된 시기 층위”, 『中國學論叢』第27輯, pp. 1-22.
- 김경환, 1998, “국어 하향이중모음의 통시적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무림, 2006, “한국 한자음의 근대성(1) 반영 양상의 종합”, 『한국어학』 제30권 pp., 90-132.
- \_\_\_\_\_, 2007, “國語 漢字音의 體系的 近代性”, 『한국어학』 제34권, pp. 113-139.
- \_\_\_\_\_, 2012, “中世國語 特異 漢字音의 時代性 論議-古代國語 借字表記와의 比較를 통하여-”, 『한국어학』 제54권, pp. 117-136.
- 김정빈, 2004, “中古漢語a系韻母に於ける韓日漢字音について-中心母音の歴史的相違を中心として-”, 『日本語文學』第26輯, pp. 21-40.
- \_\_\_\_\_, 2007, 『일본오음연구』, 서울: 책사랑.
- 김태경, 2013, “效梗攝 二等字의 한국한자음과二等韻 介音”, 『中國語文學論集』第82號, pp. 45-62.
- 박병채, 1971, 『古代國語의 研究 音韻篇』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신용태, 1982, “韓國漢字音의 母胎に關する考察”, 『人文科學研究』第1輯, pp. 121-153.
- 유창돈, 1964, 『李朝國語史研究』, 서울: 이우출판사.
- 위국봉, 2015, 『고대 한국어 음운 체계 연구-전승자음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철, 2001, 『日韓漢字音體系의 比較研究』, 広島大學 博士學位論文.
- \_\_\_\_\_, 2002a, “河野六郎의 朝鮮漢字音唐代長安音說에 對한 反論-聲類를 중심으로-”, 『日本語學研究』第5輯, pp. 97-114.
- \_\_\_\_\_, 2002b, “河野六郎의 朝鮮漢字音唐代長安音說에 對한 反論-韻類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學』第13輯, pp. 251-276.
- \_\_\_\_\_, 2002c, “四類介音의 合流時期에 對해서”, 『日本文化研究』第7輯, pp. 455-473.
- \_\_\_\_\_, 2003, 『한일 한자음 체계의 비교연구』, 서울: 보고서.
- \_\_\_\_\_, 2005, 『佛母大孔雀明王經 字音研究』, 서울: 책사랑.
- \_\_\_\_\_, 2009, “中古漢語 撮口呼의 音韻 再考”, 『日本研究』第40號, pp. 297-309.
- \_\_\_\_\_, 2012a, “韓國漢字音의 輕唇音化 反映여부에 관한 考察-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중심으로-”, 『日本學研究』第36輯, pp. 323-343.
- \_\_\_\_\_, 2012b, “韓國漢字音 1·2等 開口韻 受容樣相-日本漢字音과의 對照를 中心으로-”, 『日本言語文化』第22輯, pp. 269-285.
- \_\_\_\_\_, 2012c, “韓國漢字音 陽性·入聲韻의 開口 3等 ㅈ을류 區別 樣相-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日本文化研究』第44輯, pp. 491-507.
- \_\_\_\_\_, 2012d, “韓國漢字音 陰聲韻의 開口 3等 ㅈ을류의 區別 反映-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東北亞文化研究』第33輯, pp. 269-280.
- \_\_\_\_\_, 2013, “韓國漢字音 ㅅ口3等韻의 반영양상에 대하여-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 中心으로-”, 『日本學報』 第95輯, pp. 13-29.
- , 2014, “韓日漢字音 1·2等 合口韻 受容 樣相의 비교고찰”, 『日本語文學』 第60輯, pp. 79-95.
- 이경철·이상이, 2012, “各國 漢字音에 나타나는 肴韻의 字音形에 대하여”, 『日本學報』 第91輯, pp. 231-242.
- 이경철·최지수, 2013, “韓國漢字音 曾攝韻의 모태별 層位에 대하여-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日本文化研究』 第48輯, pp. 331-345.
- \_\_\_\_\_, 2014a, “韓國漢字音 遇攝韻의 모태별 層位에 대하여-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日本學研究』 第39輯, pp. 237-256.
- \_\_\_\_\_, 2014b, “韓國漢字音 通攝韻의 모태별 層位에 대하여-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日本學報』 第98輯, pp. 75-87.
- \_\_\_\_\_, 2014c, “韓國漢字音 蟹攝韻의 모태별 層位에 대하여-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韓國日本文化學報』 第60輯, pp. 25-44.
- \_\_\_\_\_, 2014d, “韓國漢字音 梗攝韻의 모태별 層位에 대하여-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日語日文學研究』 第91輯, pp. 121-142.
- 이기문, 1972, 『國語音韻史研究』, 서울: 탑출판사.
- 이돈주, 1995, 『漢字音韻學의 理解』, 서울: 탑출판사.
- 이승녕, 1988, 『이승녕국어학선집1(음운편 1)』, 서울: 민음사.
- 이윤동, 1997, 『韓國漢字音의 理解』, 서울:螢雪出版社.
- 이준환, 2011a, “16세기 후반·17세기 國語 漢字音 韻母의 대응 양상 및 특징(1)”, 『한국어학』 제51권, pp. 255-286.
- , 2011b, “16세기 후반·17세기 國語 漢字音 韻母의 대응 양상 및 특징(2)”, 『大東文化研究』 第74輯, pp. 180-219.
- 조대하, 2006, “日本吳音と韓國漢字音との對比研究”, 『日本言語文化』 第9輯, pp. 201-213.
- 최미현, 2006, 『한국 한자음의 이중음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지수, 2014, “韓國漢字音 江·宕攝韻의 모태별 層位에 대하여-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東아시아古代學』 第34輯, pp. 415-444.
- 허웅, 1952, “‘애 에 외 인’의 音價” 『국어국문학』 제1호, pp. 7-8.
- \_\_\_\_\_, 1965, 『國語音韻論』 서울: 正音社.
- 王力, 1985, 『漢語音韻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董同龢, 1944, 『上古音韻表稿』, 國立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 李方桂, 1980, 『上古音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 鄭張尚芳, 2003, 『上古音系』,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 有坂秀世, 1957, 『國語音韻史の研究 增補新版』, 東京: 三省堂.
- 伊藤智ゆき, 2002, 『朝鮮漢字音の研究』, 東京大学 博士学位論文.
- 小倉肇, 1979, “金光明最勝王經音義字音攷(II)”, 『弘前大学教育学部紀要』 第41号, pp. 1-10.
- , 1995, “法華經音義字音對照表” 『日本吳音の研究』 東京: 新典社. pp. 19-105.
- 河野六郎, 1979a, “朝鮮漢字音の研究” 『河野六郎著作集2』 東京: 平凡社. pp. 434-503.
- , 1979b, “資料音韻表” 『河野六郎著作集2』 別冊, 東京: 平凡社, pp. 308-322.
- 佐々木勇, 2009, 『平安鎌倉時代に於ける日本漢音の研究 資料篇』, 東京: 汲古書院.
- 高松政雄, 1982, 『日本漢字音の研究』, 東京: 風間書房.

藤堂明保, 1957, 『中國語音韻論』東京: 江南書院.

平山久雄, 1967, “中古漢語の音韻” 『中國文化叢書1 言語』東京: 大修館書店,

満田新造, 1964, 『中國音韻史論考』, 東京: 武藏野書院.

## References

- E. G. Pulleyblank. 1984.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112-113.
- William H. Baxter. 1992.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Mouton de Gruiter Berlin, NewYork, 526-531.
- W. South Coblin. 1983. *A Handbook of Eastern Han Sound Glosses*,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HongKong, 95-99.

국문참고문헌의 영문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Choe, Mi-hyun. 2006. *Study on the Double Sounds in Sino-Korean*, Ph. D, Dong'eui University, 76-80.
- Choe, Ji-soo. 2014. "Origin of Sounds on Jang and Dang Groups in Sino-Korean." *The East Asian Ancient Studies* 34, 415-444.
- Her, Woong. 1952. "Sounds of æ, e, oe, ei." *Journal of Korean Linguistics and Literatures* 1, 7-8.
- \_\_\_\_\_. 1965. *Phonology of Korean*, Seoul: Jeong'eumsa, 433-437.
- Joh, Dae-ha. 2006. "A Comparative Study of Sino-Japanese Go'on and Sino-Korean." *Journal of Japanese Language & Culture* 9, 201-213.
- Kwon, In-han. 2006. "Middle Sino-Korean." *History of Korean Language and Sino-Korean*, Seoul: Park'yijeong, 57-94.
- \_\_\_\_\_. 2009. *The Pronunciation and Meaning of Middle Sino-Korean*, Seoul: J&C.
- Kwon, Hyuk-jun. 2010. "Phonological Changes in Yu Rhyme Group and Liu Rhyme Group and Their Historical Strata Reflected on Sino-Korean." *Journal of Chinese studies* 27, 1-22.
- Kim, Kyong-hwon. 1998. *Diachronic Study on Falling Diphthongs in Korean*, Sungkyunkwan University, 144-171.
- Kim, Moo-Rim. 2006. "The Modern Traits of Sino-Korean Characters of Middle Era(1)." *Korean Linguistics* 30, 90-132.
- \_\_\_\_\_. 2007. "The Systematic Modern Traits in the sound of Sino-Korean Characters." *Korean Linguistics* 34, 113-139.
- \_\_\_\_\_. 2012a. "A Study on the Special Sounds of Sino-Korean Characters." *Korean Linguistics* 54, 117-136.
- Kim, Jeong-Been. 2004. "On the Korean-Japanese Readings of Ancient Chinese a medials in Chinese Characters." *Korean Journal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26, 21-40.
- \_\_\_\_\_. 2007. *A study on the Sino-Japanese Go'on*, Seoul: Chaeksarang, 371-530.
- Kim, Tae-kyong. 2013. "Evidence for the Medial of Grade 2 Rhymes in Sino-Korean."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82, 45-62.
- Lee, Kyong-chul. 2001.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ucture of Sino-Korean and Sino-Japanese*, Ph. D, Hiroshima University, 121-124.
- \_\_\_\_\_. 2002a. "The counter Argument of Sino-Korean Originated form Chin'in by Kono-Rokuro: Focusing on Initials." *Journal of Japanese Language* 5, 97-114.
- \_\_\_\_\_. 2002b. "The counter Argument of Sino-Korean Originated form Chin'in by Kono-Rokuro: Focusing on Rhymes." *Korean Journal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13, 251-276.
- \_\_\_\_\_. 2002c. "On the Joining Time of Four Medials." *Japanese Cultural Studies* 7, 455-473.
- \_\_\_\_\_. 2003.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ucture of Sino-Korean and*

- Sino-Japanese*, Seoul: Bogosa, 156-172.
- \_\_\_\_\_. 2005. *The Phonological Study of Chinese Characters in Butsubodaikuzyakukyo*, Seoul: Chaeksarang, 171-274.
- \_\_\_\_\_. 2009. "On the Phonemes of Contained Medial u and i in Ancient Chinese." *Japanese Studies* 40, 297-309.
- \_\_\_\_\_. 2012a. "A Study on the reflects of Labiodentalization in Sino-Korean." *Japanese Studies* 36, 323-343.
- \_\_\_\_\_. 2012b. "A Study on the Reflects of the Rhymes Compound Non-Medials in Sino-Korean." *Journal of Japanese Language & Culture*, 22, 269-285.
- \_\_\_\_\_. 2012c. "A Study on the Distinction of Two Type of Medials ĭ and i in Sino-Korean." *Japanese Cultural Studies*, 44, 491-507.
- \_\_\_\_\_. 2012d.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flects of Two Type of Medials in Sino-Korean and Sino-Japanese ."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33, 269-280.
- \_\_\_\_\_. 2013. "A Study on the Reflects of Two Type of Medials wĭ and wi in Sino-Korean."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95, 13-29.
- \_\_\_\_\_. 2014.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flects of Rhymes Compound W-medial and Low Vowel in Sino-Korean and Sino-Japanese." *Korean Journal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60, 79-95.
- Lee, Kyong-Chul and Sang-hee, Lee. 2012. "A Comparative Study on the Phonetic Notations of Rhyme Xiao in Each Countries."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91, 231-242.
- Lee, Kyong-Chul and Ji-soo, Choe. 2013. "Origin of Sounds on Zeng Group in Sino-Korean." *Japanese Cultural Studies* 48, 331-345.
- \_\_\_\_\_. 2014a. "Origin of Sounds on Yu Group in Sino-Korean." *Japanese Studies* 39, 237-256.
- \_\_\_\_\_. 2014b. "Origin of Sounds on Tong Group in Sino-Korean."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98, 75-87.
- \_\_\_\_\_. 2014c. "Origin of Sounds on Hai Group in Sino-Korean." *Journal of Japanese Culture* 60, 25-44.
- \_\_\_\_\_. 2014d. "Origin of Sounds on Geng Group in Sino-Korean." *Journal of Japanese Language & Literature* 91, 121-142.
- Lee, Gi-mun. 1972. *A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Phonology*, Seoul: Tap Publishing Company, 96-98.
- Lee, Don-ju. 1995. *Understanding of Chinese Phonology*, Seoul: Tap Publishing Company, 198-202.
- Lee, Sung-nyong. 1988. *Collection of Korean Linguistics written by Lee, Sung-nyong: Phonology 1*, Seoul: Min'eumsa. pp.514-531.
- Lee, Yun-dong. 1997. *Understanding of Sino-Korean*, Seoul: Hyeongseol, 200-210.
- Park, Byong-chaeh. 1971. *A Study on the Ancient Korean: Phonology*, Korea University, 122-128.
- Shin, Yong-tae. 1982. "A Study on the Source of the Sino-Korean." *Journal of Cultural sciences* 1, Kukje University, 121-153.
- Yu, Chang-don. 1964. *History of Korean Language in Joseon Dynasty*,

- Seoul: Yiwoo. p.32.
- Yi, Jun-hwan. 2011a. "An Inquiry into Final's Correspondency Aspects and Features in Late 16th and 17th Century's Sino-Korean(1)." *Korean Linguistics* 51, 255-286.
- \_\_\_\_\_. 2011b. "An Inquiry into Final's Correspondency Aspects and Features in Late 16th and 17th Century's Sino-Korean(2)." *Journal of Eastern Studies* 74, 180-219.
- Wi, Guk-bong. 2015. *Study on the Phonological System of Old Korean: According to the Sounds of Sino-Korean*, Ph. D, Seogang University, 1-240.
- Dong, Tong-he. 1944.. *Phonology of Archaic Chinese*, Chinese National Academy research Institute of History and language. 123-249.
- Li, Fang-gui. 1980. *A Study of Archaic Chinese*, Beijing: ShangWuyinshuguan. 36-73.
- Wang, Ri. 1985. *A History of Chinese Phonology*, Beijing: Chinese Social Science Publishing Company, 215-244.
- Zheng, Zhang-shang-fang. 2003. *Archaic Chinese*, Shanghai: Shanghai Education Publishing Company, 70-74, 247-249.
- Arisaka, Hideyo. 1957. *Study on the History of Japanese Phonology*, Tokyo: Sanseido, 303-336.
- Hirayama, Hisao. 1967. "Phonology of Middle Chinese." *A Series of Chinese Culture 1: Language*, Tokyo: Taishukansyoten, 28-40, 147-156.
- Ito, Chiyuki. 2002. *A Study of Sino-Korean*, Ph. D, Tokyo University, 173-179.
- Kono, Rokuro. 1979a. "A Study of Sino-Korean." *Kono-rokuro Collected Edition 2*, Tokyo: Heibonsha, 434-503.
- \_\_\_\_\_. 1979b. "Phonological Chart." *Kono-rokuro Collected Edition 2*, Tokyo: Heibonsha, 308-322.
- Mitsuda, shinzo. 1964. "On the Similarity of Sino-Korea and Sino-Japanese Go'on: A Route of Sino-Korean." *A Study on the History of Chinese Phonology*, Tokyo: Musashinosho, 606-632.
- Ogura, Hajime. 1979. "On the Sounds of Characters in Kongomyosaisyō'okyo (II)." *Hirosaki University Repository for Academic Resources* 41, 1-10.
- \_\_\_\_\_. 1995. *A Study of Sino-Japanese Go'on*, Tokyo: Shintensha, 19-105.
- Sasaki, Isamu. 2009. *A Study of Sino-Japanese Kan'on in Heian and Kamakura period: Materials*, Tokyo: Kyukoshoin, 82-550.
- Takamatsu, Masao. 1982. *A Study of Sino-Japanese*, Tokyo: Kazamashobo, 488-505.
- Todo, Akiyasu. 1957. *Phonology of Chinese*, Tokyo: konansho, 221-223.